

2

1946-1979년

# 한국의료계 성장과 대한의학협회

동족상잔 6·25 한국전쟁...생명 걸고 부상자 치료  
선진의학 접목...의학·교육 급성장 역사적 전환점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 의료계는 1947년 조선의학협회를 창립하고, 전국 의사회 중앙회 조직을 갖춰 나갔다.

전국 의사회 중앙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조선의학협회지 창간호도 발행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에는 '조선의학협회'를 '대한의학협회'로 개칭했다. 1949년에는 세계 의사회(WMA) 회원국에 가입하며 기틀을 다졌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 6·25 한국전쟁 발발로 위기를 맞았다. 전국 대부분 의료기관이 파괴되거나 문을 닫았다. 서울대병원 입원 환자·의사·간호사 등 1000여명을 도륙한 서울대부속병원 학살 사건(1950년 6월 28일)을 비롯해 3년 1개월 동안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참상이 벌어졌다.

전국의 의사와 의대생들은 부상자 치료를 위해 생명을 걸고 야전병원으로 달려갔다. 전쟁 와중에 상당수 의학자들이 납북되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유엔군 150만명, 공산군 2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국전쟁은 부상병들과 난민 치료를 위해 의료지원에 나선 UN 참전국의 선진 의학을 접목하는 계기가 됐다. 신경외과·흉부외과 등 외과학 분야는 물론 마취과학·병리학·혈액학 등의 의료 수준이 급성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의학교육도 미국식 교과과정을 도입,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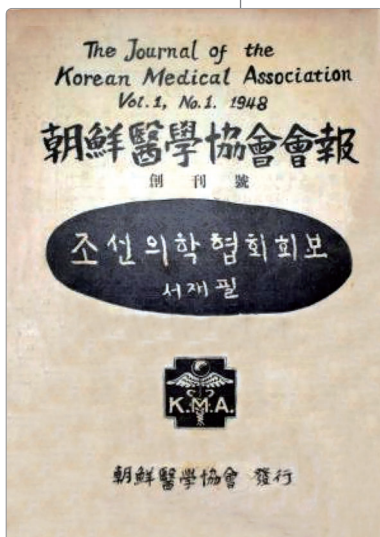
1955년 관훈동 대한의학협회 회관. 1955년 11월 매입 후 1960년 11월 화재 시까지 5년 동안 사용했다. 회관은 서울특별시시사와 함께 사용했다. ▼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야전병원 의료진이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다. ▶



1955. 11.



1948.05.10  
조선의학협회 회보 창간 (발행인 심호섭·한글 제호 서재필)



◀ 1945년 8월 15일 광복 직후 개원의 중심의 '건국 의사회'와 의대 교수가 주도한 '조선의학연구회', '조선 의사회' 등이 혼재했다. 1947년 5월 '조선의학협회' 발족을 계기로 전국 의사를 대표하는 중앙단체로 출범했다. 1948년 5월 10일 창간호인 <조선의학협회회보>는 서재필 박사가 쓴 한글 제호를 썼다.

▲ 의협 대의원들이 1961년 10월 13일 서울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처음으로 '의사윤리선서'를 하고 있다. 의협은 1961년 세계 의사회 제정 윤리선서를 번역, 채택했다. 의사윤리선서는 의사단체 회원이 모이는 공식 석상과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낭독했다.



▲ 1962년 5월부터 새 의료법에 따라 실시된 의료인 정기신고 광경(1972년).